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8호 [루게 제 24856호] 주제 104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당에서 벽을 올리면 강산을 올리는 전투적기상 내려치는 세포전역

최근 한 달 동안에 13만여t의 도양개량제를 생산, 2만 8천여㎡의 골재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를 확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산악장이 일떠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이 당에서 벽을 올리면 강산을 올리는 전투적기상을 떨치며 새 기적, 새 기록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한달 동안에 5만 7천여의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각종 도양개량제 13만여t을 생산하였다. 또한 2만 8천여㎡의 골재를 비롯한 많은 건설용자재를 확보한 기세로 력속 공격전을 철저히 벌이고 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양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승리의 리정따라 토지개량과 풀판장, 건축공사와 도로건설작업을 혁신적으로 하고 전투장마다를 달려나가 대중을 불리우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펴가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일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해나갔다. 조선인민군 주동철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일당백의 기성과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칠데 대한 공동투호를 받들고 매일 평균 5천여t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으며 200대의 각종 운반수단을 리용하여 실어냈다. 인민보안부대원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열흘동안에만도 1천여t의 나란을 캐냈다. 또한 종전 한달실적의 2배 이상 되는 집짐승배설물을 확보하여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철도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조선속도창조열풍을 고조시키며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일당백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월천 넘쳐 수행하였다. 유기질 비료생산과 골재확보계획도 넘쳐 수행하면서 1500㎡의 통나무와 여러의 강재를 자체로 마련하는 자랑을 떨쳤다.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토지개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세포지구 축산사업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혁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 깊이에 새기고 나란과 고외석회로 채취장을 제함으로 꾸리고 수송대책을 빈틈없이 세웠으며 한달 동안의 소석회와 유기질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 기간에 골재를 넘쳐 확보하면서 수백t의 통나무와 100여t의 세멘트를 자체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황창조의 불길은 자강도려단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세포 돌격대를 기쁨진 땅으로 바꾸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끝까지 관철 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안고 집단투쟁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토지개량생산에서 말려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만장의 블로크와 1만 6천여대의 버림목까지 마련하면서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또 시, 군의 책임일군들이 수백㎡의 목재와 8종에 1만여점의 작업공구 2천여점을 비롯한 장비와 공구, 그리고 현지에 나와 돌격대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유원지총국의 책임일군들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많은 강제와 세멘트, 연유와 풀판조성에 필요한 골재, 나무, 집짐승배설물을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준데 이어 현지에 나와 자기 단위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었다. 그리하여 돌격대원들이 맡겨진 토지개량생산과 건설용자재확보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쳐나도록 세포돌격대의 인민들을 꽃피우는 사회주의대지로 훌륭히 전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기어이 실현할 불타는 열의 밑에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었다. 결과 지난 한달 동안에 1천여t의 세멘트와 90여t의 강재를 자체로 확보하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전당이 펼쳐진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강력히 떠밀어주는 가운데 식료일용공업성, 경공업성, 수배량정성, 농업성, 대외경제성, 원유공업성, 최고검찰소, 대성지도국, 인민봉사총국,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시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 돌격대들과 각 도려단들이 토지개량생산과 건설용자재확보사

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한 기세로 대강건설전투를 붙이면서 나간데 다그치고 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평강군 송포리지역에서 방대한 저류지공사를 끝낸데 이어 세포군 성산리지역에 락아소, 유치원을 꾸리기 위한 지대정리를 하며 도로를 지형조건에 맞게 잘 건설하는 등 여러가지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다. 전력공업성과 평양시려단, 대동도국들로부터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고기, 젓, 떡이 가공기지건설과 관련한 지대정리, 전기 및 도로공사를 빨리 다그쳐 끝내고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의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수도건설위원회편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로만 하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혹관철을 문제없다는 확고한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축산사업의 수와 수의 방역소건설을 3월중에 완공하기 위해 선군조선의 창조분배를 힘있게 발휘하고 있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포전역에 넘쳐나 후원의 람을 높이 쌓아 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지식경제시대의 새 풍경

◇ 지금 전자회적으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 도시, 군들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 끈히 갖춘 도서관, 미배원들이 훌륭히 일떠서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정서생활기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바다세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과학기술지식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하고있는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 있다고,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 수 있게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운영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은 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중요한 거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공을 세우며 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잘하는 단위로 소문이 났다. 2011년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강의실로 시작한 공장에서는 해마다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학습열도도 날이 높아지고 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현저히 오르고 과학기술과 생산이 더욱 밀착되고 있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어 현대화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을 보며 공장일군들은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운영이 종업원들

을 과학기술의 주인으로 만들고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울은 말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인민을 자주적인 사회주의와 함께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울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과학기술을 알려주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응축되어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위대한 포부와 리상이 어려우며 시대의 요구가 깃들여있는 곳이 바로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이다. **◇** 여기서나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지식보급실운영이 일찌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주고 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에서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지식보급실들을 잘 꾸려놓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술학습도 많이 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세계적추세도 알게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사조기지를 튼튼히 구축하고 열람봉사에도 필요한 설비와 비용들도 원만히 마련해놓아야 한다. 누구나 원격교육대학 학생이 되고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의 적극적인 리용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당의 은총속에 마련된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에서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칠 때에 나라에 창조와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 우리 당의 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은 자랑스런 현실로 꽃피게 될 것이다.

제 17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된다

은 나라 천만군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행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제 17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 주제 104(2015)년 4월 중순부터 김일성화축전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축전에는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에 벗들 그리고 개별적인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게 된다.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와 김일성화축전일화전시

참관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태양의 꽃 축전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영원히 만들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인류의 다함없는 호모심과 그리움이 넘쳐나는 위인칭송의 꽃축전, 영생축전의 대정치축전으로 펼쳐진다. 제 17차 김일성화축전은 태양절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쭉같이 향하여 위대한 당의 전투적소호마라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보무당망히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다.

뜨락또르출동식 진행, 논밭갈이에 일제히 진입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펼쳐나선 남포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뜨락또르출동식을 진행한데 이어 불철ხ날갈이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각 구역, 군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들의 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도록 한 후 와우도구역을 일제히 투입하고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뜨락또르출동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승리의 신념에 넘쳐 불철ხ날갈이에 진입한 뜨락또르출동식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며칠동안에 전체 경지면적의 30%이상에 달하는 논밭갈이를 진행한 기세로 높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 불철현열을 비롯 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뜨락또르출동식이 의의있게 진행되었다.** **와우도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시적인 시범단위로서 뜨락또르출동식을 진행하는데 맞게 구역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뜨락또르수리정비를 다그쳐 끝내게 하는 한편 출동식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였다.** **시인의 각 구역, 군협동농장경**

이러 출동구명이 내리자 수십대의 뜨락또르들이 동시에 경계를 떠나 시내 여러곳에 미리 장만해놓았던 도시거름을 적재함마다 그득히 싣고 농장전으로 달려나갔다. **뜨락또르출동식들은 주인다운 림장에서 깊이깊이를 정확히 보장하고 귀중이면서 극력 줄이면서는날갈이전투에서 애국적인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가고 있다.** **농장의 일군들은 운전자들과 함께 뜨락또르에 올라 포전을 누비기도 하고 그들의 휴식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한편 예비점검 및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뜨락또르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하고 있다.** **시인의 일군들과 뜨락또르운전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논밭갈이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주창선**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선교전직공장에서-

다기능화된 물고기잡이배들을 건조

합 경 복 도 에 서 **이 땅에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이 솜을 받들고 물고기잡이배들을 건조하고 있다. 특히 다기능화된 물고기잡이배들이 힘을 넣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민혁의 배가 설계상의 요구대로 건조되었으며 여러척의 배들은 선체조립이 끝나고 현대적인 설비들과 어구자재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건조되고있는 배들은 현대적인 설비와 어구들을 갖추고 물고기를 마중하면서 잡고 따라잡기 잡으며 바다로 나갈 때 그리고 포구로 돌아올 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다기능화된 물고기잡이배이다. 이 배들은 모든 설비들이 물고기잡이에 편리하게 되어있으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편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많은 량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도의 일군들은 다기능화된 물고기잡이배우리가 올레 물고기대중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시대의 수산부일군들과 어로공들간의 큰 힘을 줄**



력사에 길이 전해갈 송고한 동지애의 전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와 그의 가족에게 뺨풀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에 대한 이야기

지난 1월 애국렬사릉에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봉골의 통일애국투사인 리인모동지의 부인 김순임동지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순임동지께서 보내주시는 보고를 받으시고 사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라는 뜻을 잘해주시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다.

리인모동지는 이미전에 우리 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부인의 사후문 제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세위인의 송고한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의리의 세계앞에 유가족과 비친향장기수들 아니 나라 인민은 추추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각각한 세상에서 인정이 그리운 그에게 해외의 인사들과 동료들이 편일 찾아가 고무격려해주었고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리인모동지를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여기에도 리인모동지의 귀환을 위해 그로록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어려어있었다.

리인모동지의 딸 리현옥동무는 아버지의 귀환을 위해 한없는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드려주는 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렸다.

그의 편지를 보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있습니다》

김 정 일
1993.2.24.》라는 은정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그 고귀한 친필속에는 모친 약형을 당하면서도 한편 다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싸운 리인모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평님과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믿음, 전사를 거어어 당의 품으로 데려오시려는 그의 철칙의 의지가 그대로 집약되어있었다.

리인모동지가 돌아온 시기로 말하면 핵분자를 둘러싸고 우리와 적들 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최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침략행동에 대처하여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이 준엄한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를 데려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셨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리인모동지를 데려와야 한다. 우리를 믿고 30~40년을 싸우온 동지인데 우리가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여주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을 새겨안으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그의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세계를 다시금 깊이 느끼었다.

사람들은 리인모동지가 조국으로 돌아올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었는가 하는 것을 다는 모를것이다. 리인모동지의 귀환을 국가적행사로 잘 조직할데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느라 그 밤을 꼬박 새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설 때 병안한 그의 신변에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에 대처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다.

천천히 앞만 도 넘어 내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그 뜨겁고 열렬한 동지적사랑과 은정이 있어 마침내 리인모동지는 살아있는 안길수 없다고 생각했던 조국, 고향에도 그리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승리를 화석으로 불리우던 자기에게 새 삶과 정치적생명을 안겨 주시고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베풀어주시신 위대한 수평님과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걸어 갈 줄타는 결의를 다지셨다.

리인모동지는 자기의 맹세를 실천하여 조국으로 고국으로 빠져지 달린 그의 가는 손목에 금시계도 채워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곁에 서서 여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던 말인가. 최고의 단상에 편히 모셔야 할 위대한 수평님께서 서신체 사진을 찍으시다니...)

위대한 수평님께서 이런 생각으로 올리는 전사의 어깨를 되찾아주시고 원후와 싸워진 불굴의 투지와 신념을 가지고 병치로 활하여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40돐기념 열병식장에 나서시고 뜨겁게 고무하여주시었다.

그날 리인모동지는 40여년동안이나 가담하고 있었던 리인모동지에게 있는 증거와 자랑, 행복을 노래한 글과 편지를 모아 리인모동지라는 글로 묶어서 《로동신문》에 게재하였다. 편이 《우리는 정말 수평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당파가 차별됩니다》, 《우리 민족의 대행운 생명을 지켜 육체가 만신창이 되는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우리 당이 장천히 날로 고쳐주신 것이다》

파괴와 물고기도 보내주시었으며 건 강과 영양상태를 유지하도록 각종 보약들과 고급영양제들을 안겨주시었다. 남녘의 감방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던 리인모동지의 정상이 그러도 가슴아프시어 인민들이 서성대어 울린 선물세일이불마져 그에게 보내주시고 의국에서 병치로 병도록 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은 또 얼마나 사랑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리인모동지는 그 열렬하고 무한한 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조국으로의 귀환후 불과 며칠밖에 못산단 남조선학계의 진단을 부정하고 14년간이나 행복속에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애석하시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 의지를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 당과 조국혁명을 이어본적이 없는 인민중으로 하며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장하도록 해주셨다.

그러하여 그의 삶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라는 고귀한 정초와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도록 해주셨다.

정녕 아버지수평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리인모동지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어주시고 그에게 생의 기적과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신 위대한 은인이다.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어오신 동지애의 력사는 또 한없는 정초의 위인이신 김정은동지의 품을 높이 모시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리인모동지의 부인 김순임동지께서 받은 뜨거운 사랑은 열렬한 동지에, 인민사람의 세계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평님들의 고매한 천품을 그대로 세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격적인 화폭이다.

리인모동지와 그의 부인이 받아안은 절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동지애의 최고화신인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찬가로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 * *

위대한 수평, 위대한 당이 안겨준 사랑과 믿음, 고귀한 정치적생명이 있어 혁명적사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있고 빛나는 삶과 영광이 있거라 백두의 천출위인 영도자로 모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신념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민의 삶도 무궁토록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어머니조국은 장한 아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우리 당과 우리 광화국의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주체 82(1993)년 3월 19일,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인류사가 지극히 알지 못한 사변이 펼쳐졌다. 신념과 의지의 전행인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리인모동지가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품결에 오른데로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겼었다.

이날 민족의 장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수십리 연도에 꽃바다를 펼쳐고 《불사조 리인모!》를 목청껏 헤치던 환영군중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의 귀가에 어찌런듯 생생히 울려온다.

그 어느 영웅로도 받아본적 없는 열광적인 환영속에 조국의 품에 안긴 그를 보며 세상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당시 언론들은 이 광경을 보도하며 인민유년에 대한 리인모동지의 승리, 반동일행들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빛나는 승리라고 찬양하였다.

이 놀라운 세계사적사변을 안아오신분은 다름아닌 우리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장군님이시다.

리인모동지가 생존하여 원수들과 싸우고있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진것은 그의 수기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린 1989년이었다.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모친 육종고초를 당하면서도 당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신념과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리인모동지가 남녘땅에서 아직도 정신육종고초를 겪고있는 데 대해 가슴아파하셨다. 혁명적사한사람한사람을 친금보다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며 그를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주시었다.

이날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당시)에 관한 제3차 평양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만나주시던 위대한 수평님께서 대표들에게 리인모동지의 딸 리현옥동무가 있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리인모동지가 두고간 딸, 이제는 벌써 어머니가 된 그를 보시는 순간 위대한 수평님께서도 잊었던 훈육을 다시 찾으신듯 이윽로록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셨다. 이에 위대한 수평님께서 그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너의 아버지를 아직 데려오지 못하여 안됐고, 우리 꼭 아버지를 데려오자고 결결하게 말씀하셨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헤쳐가시는 위대한 수평님의 송고한 의리와 동지애의 품모를 이어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의 귀환을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남측대표단과 회담을 할 때마다 리인모동지를 데려오는 문제를 상정시키도록 하시었으며 세계의 평화를 불러일으켜 리인모동지투쟁을 벌리며 안해와 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용기를 내게 하는 문재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어느해 정초에는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든 도 리인모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데 그냥 남쪽에 있어야 살려야 한다고 결결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처자하고 만나 살려야 손자, 손녀를 낳게 하고 모란봉에도 오르고 평양의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이르시었다.

김 정 일

1993.2.24.》라는 은정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그 고귀한 친필속에는 모친 약형을 당하면서도 한편 다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싸운 리인모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평님과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믿음, 전사를 거어어 당의 품으로 데려오시려는 그의 철칙의 의지가 그대로 집약되어있었다.

리인모동지가 돌아온 시기로 말하면 핵분자를 둘러싸고 우리와 적들 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최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김 정 일

1993.2.24.》라는 은정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그 고귀한 친필속에는 모친 약형을 당하면서도 한편 다진 혁명신념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싸운 리인모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평님과 장군님의 높은 평가와 믿음, 전사를 거어어 당의 품으로 데려오시려는 그의 철칙의 의지가 그대로 집약되어있었다.

리인모동지가 돌아온 시기로 말하면 핵분자를 둘러싸고 우리와 적들 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최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생의 빛깔기, 영생의 품

판문점분리선을 넘을 당시 리인모동지의 건강상태는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고있었다. 심장기능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폐농양이 왔으며 운동기능상태는 령에 가깝고 심한 언어, 호흡장애까지 겹쳐있었다. 이로부터 남조선의 사람들은 그가 조국으로 간다고 해도 며칠을 넘기지 못할것이라고 장담하였었다. 집적판을 통하여 방울방울 떨어지는 액체로 실날같은 생나가기로 이끌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이처럼 마지막호흡을 삼키는 그를 만나주시려 몸소 병원에 나오시었다.

수십년세월 지나가나 위대한 수평님과 우리 당단을 생생히 기억하는 동지 그 생명을 지켜주어 리인모동지를 부어준 불사약이었고 죽음을 밀어내고 삶을 이어준 생의 젓줄기였다.

드디어 사랑의 데지에서 리인모동지는 꺼져가던 생을 되찾았다. 원수들의 모친 약형에 의해 숨쉬는 화석, 시들어버린 고엽처럼 되었던 그는 전설과도 같이 살아났다. 그에 대 사람들에 기적이라고 하였다. 정말 기적이요.

너무도 사려깊고 자애로운

위대한 태양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리인모동지는 기나긴 육종투쟁의 나날에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흘내 흘리고야말았다.

의료인원들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 그의 병세가 점차 호전되어간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아버지수평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주체 82(1993)년 4월 15일, 만민의 축복을 받으시어 아가 뜻깊은 태양절날에 위대한 수평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려 몸소 병원에 나오시었다.

수십년세월 지나가나 위대한 수평님과 우리 당단을 생생히 기억하는 동지 그 생명을 지켜주어 리인모동지를 부어준 불사약이었고 죽음을 밀어내고 삶을 이어준 생의 젓줄기였다.

드디어 사랑의 데지에서 리인모동지는 꺼져가던 생을 되찾았다. 원수들의 모친 약형에 의해 숨쉬는 화석, 시들어버린 고엽처럼 되었던 그는 전설과도 같이 살아났다. 그에 대 사람들에 기적이라고 하였다. 정말 기적이요.

너무도 사려깊고 자애로운

리인모동지가 생존하여 원수들과 싸우고있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진것은 그의 수기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린 1989년이었다.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모친 육종고초를 당하면서도 당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신념과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리인모동지가 남녘땅에서 아직도 정신육종고초를 겪고있는 데 대해 가슴아파하셨다. 혁명적사한사람한사람을 친금보다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의 투쟁을

리인모동지가 생존하여 원수들과 싸우고있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진것은 그의 수기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린 1989년이었다.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모친 육종고초를 당하면서도 당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신념과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리인모동지가 남녘땅에서 아직도 정신육종고초를 겪고있는 데 대해 가슴아파하셨다. 혁명적사한사람한사람을 친금보다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의 투쟁을

리인모동지가 생존하여 원수들과 싸우고있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진것은 그의 수기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린 1989년이었다.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모친 육종고초를 당하면서도 당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신념과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리인모동지가 남녘땅에서 아직도 정신육종고초를 겪고있는 데 대해 가슴아파하셨다. 혁명적사한사람한사람을 친금보다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의 투쟁을

리인모동지가 생존하여 원수들과 싸우고있는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진것은 그의 수기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린 1989년이었다.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의 모친 육종고초를 당하면서도 당과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킨 신념과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은 리인모동지가 남녘땅에서 아직도 정신육종고초를 겪고있는 데 대해 가슴아파하셨다. 혁명적사한사람한사람을 친금보다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평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리인모동지의 투쟁을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의 수령령사용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애국헌신의 길에서

주체 89(2000)년 1월 어느날이었다.

한겨울의 맹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안북도 대한 현지도의 길에 오르셨다. 사설은 리인모동지의 건강이 녀려져서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도를 좀 미루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면서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고있고 또 평안북도에서 도지정리한 포전들도 한시 바빠 보고싶어 떠나야 한다고, 자신에게는 일하는것이 끝 휴식이 라고 교시하셨다.

렬차에서마저도 한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장군님들 일군들은 너무도 안락하고 전사들의 청을 한탄만이라도 받아주시것을 거듭 이희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걱정마오, 그래도 지날밤 나는 30분동안 잠 잤소, 30분동안 말이라고 하시며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었다. 결국 이날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30분으로 하루 휴식을 대신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덧쌓인 로고와 피로를 그대로 안으신채 현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었다.

어느해 가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을 떠나시었을 때의 일이다. 한낮이 되어서 인적없는 어느 한 산골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간단한 오기나 하고 가자고 하시면서 차를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중에서 시간이 지체될것 같아 아침에 떠날 때 제기밥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모두들 배가 몹시 고프졌는데 아무데서나 요기를 하고 빨리 떠나자고 이르시었다.

너럭바위위에 둘러앉아 제기밥을 맛있게 들고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제기밥은 감도 특별한것이 필요없고 만드는데 롬도 많이 들지 않기때문에 급히 길을 떠나야 할 때 준비하기 위해서 좋고 가다가 아무데서나 펼쳐놓고 먹을수 있기때문에 시간도 얼마 매우치지 않아 좋다고 하시면서 제기밥은 혁명적행위에 있어서 리상적인 도중식이라고 할수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리상적인 도중식사.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더불어 그 의미가 새로워진 제기밥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새겨 본다.

어느해 8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형타에서 쏟아져나오는 세수비누들을 몸소 만져보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었다.

평양시민들속에서 평가가 좋은 대담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었다.

그날 견본실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문화생활에 대한 우리 녀성들의 요구수준도 지난 시기보다 비할바없이 높아졌다고 하시면서 입술연지같은것도 호수를 붙여 여러가지로 만드는데 녀성들이 자기의 얼굴색깔과 기호에 맞는것을 골라쓰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평양화장품공장은 질풍은 화장품을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으로서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하고는 위대한 장군님, 정정 명철한, 휴식날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며 조국방방방곡에 인민행렬의 기적로스를 끊임없이 올려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본사기자 강철 남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동공호를 받들고 그 어디에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념,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로 집대성되어오던 혁명관철전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념,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로 집대성되어오던 혁명관철전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념,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로 집대성되어오던 혁명관철전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민의 배고픔으로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쪽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우리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들이며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당중앙경사옹위전으로 여기고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전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었다. 배배주의자들의 우는소리를 만민의 배고픔으로 질투버리고 황금색의 새 력사공을 펼친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야말로 우리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이며 선군시대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행이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온갖 총공격전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사자들이 이렇처럼 살며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바라는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선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긴 사람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다. 여기

에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념,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로 집대성되어오던 혁명관철전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민의 배고픔으로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쪽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우리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들이며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당중앙경사옹위전으로 여기고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전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었다. 배배주의자들의 우는소리를 만민의 배고픔으로 질투버리고 황금색의 새 력사공을 펼친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야말로 우리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이며 선군시대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행이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온갖 총공격전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사자들이 이렇처럼 살며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바라는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선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긴 사람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다. 여기

에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념,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로 집대성되어오던 혁명관철전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민의 배고픔으로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쪽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우리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들이며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당중앙경사옹위전으로 여기고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전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었다. 배배주의자들의 우는소리를 만민의 배고픔으로 질투버리고 황금색의 새 력사공을 펼친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야말로 우리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이며 선군시대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행이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온갖 총공격전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사자들이 이렇처럼 살며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바라는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선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긴 사람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다. 여기

에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녀념, 우리 혁명발전의 실천적요구로 집대성되어오던 혁명관철전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절결한 옹호관철자들의 영웅적전군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당의 사상만을 신봉하고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무조건 지지하고 결결히 옹호관철하는 사람이야 참다운 혁명가가 될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민의 배고픔으로 높이 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쪽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우리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들이며 결사관철의 투사들이라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수산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당중앙경사옹위전으로 여기고 당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전행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었다. 배배주의자들의 우는소리를 만민의 배고픔으로 질투버리고 황금색의 새 력사공을 펼친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야말로 우리 당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이며 선군시대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행이다.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온갖 총공격전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사자들이 이렇처럼 살며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바라는 당정책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관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선 당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긴 사람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다. 여기

조선관 외인리 당조직에서는 현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혁명전공요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평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혁명발전사관가지들의 회고기를 말로나가 포연에서 독보하고 해설달달도 실감있게 들려가고 세우고 그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당조직에서는 현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혁명전공요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평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혁명발전사관가지들의 회고기를 말로나가 포연에서 독보하고 해설달달도 실감있게 들려가고 세우고 그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당조직에서는 현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혁명전공요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평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혁명발전사관가지들의 회고기를 말로나가 포연에서 독보하고 해설달달도 실감있게 들려가고 세우고 그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당조직에서는 현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혁명전공요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평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혁명발전사관가지들의 회고기를 말로나가 포연에서 독보하고 해설달달도 실감있게 들려가고 세우고 그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아 풀고나가며 백 번 쓰러지면 백 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무장할 때 못내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화적적이요는 고귀한 진리를 새겨안은 이쪽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면한 영웅전투에서 성과를 기록해가고있다.

로동신문원 리 학 철

일군들은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자

정치적생명의 참다운 보호자가 되어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단위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데서 당책임일군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책임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책임지려면 우선 자기 단위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며 대중을 우리 당의 두리에 든든히 묶어 세워야 한다.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스림으로써 철저히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안아 따듯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려면 우선 대중을 안고 그들을 우리 당에 붙들어 확실한 선군혁명동지로서, 애국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주는 헌신적일군으로서 당의 사업기공의 일꾼을 보자.

당책임일군들은 매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애국심의 작은 싹도 키우며 여기고 꽃피워주어야 하며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오만자루

의 품을 들어 바른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어느날 당책임일군이 서창청년단반장의 한 일군에게 탄광의 오랜 로동자인 김성동무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난처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이제 나이도 있다나니 젊은 이들 같지 않습니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 얼마전 데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때 김성동무는 몸이 불편하였지만 탄광에 나와 젊은 기술자들을 도와주고있었던 것이다.

그날밤 당책임일군이 서창청년단반장의 지령실에 갔을 때 김성동무는 권양기개조안면경을 놓고 생각해 골똥하고있었다. 밤늦게까지 수고한다고 하는 당책임일군에게 그는 나이가 들고보니 젊었을 때 탄광의 기술발전을 위해 더 일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의 애국심을 소중히 여기고 꽃피워주는것이 우리 당일군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김성동무만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애국심의 작은 싹도 키우며 여기고 꽃피워주어야 하며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오만자루

탄광들에 나간 당위원회일군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 아직 사람들이 알아지지 않은 수많은 비호자로 알게 되었다.

당위원회 선진선동부에서는 그것을 종합하여 정치사업자로에 첨부하였다. 영예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방충선진자를 통해 크게 떠들었다. 하여 그로 알리지 않았던 기업소의 공로자들과 혁신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이것은 온 기업소에 애국의 열풍을 몰아왔다.

당책임일군은 또한 뒤떨어진 사람들을 잘 교양하고 이끌어주는 데도 큰 공을 올렸다.

어느날 밤 당책임일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날 한 일군이 덕천 탄광 리수복청년동지대의 한 청년을 두고 사람구실을 하기를 했다고 하던 말이 떠올라서였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잘못 살아온 도인의 청년들이 많으며 애국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조직들에서 이들의 애국심을 더욱 키워주고 잘 보살펴주며 이끌어주어 시대의 당당한 청년들로 내세워야 하겠다고, 청년들의 소중한 애국심을 잘하고 하니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것 못지않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달해주고 제 1비서의 인사록 쪽 전체를 읽어보고 하신 말씀이 천만마의 무게로 실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에 비추어볼 때 자신은 너무도 먼거리였었다.

날이 밝자 당책임일군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덕천탄광 리수복청년동지대에 내려갔다.

그날 당책임일군은 그 청년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일군들에게 절절히 말하였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머니탄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나 동무들이 전적으로 어머니탄광을 했는가, 어머니는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을 쓴다. 지난날 잘못 살아온 청년들도두들 친자식처럼 여기고 진정을 다 바쳐 선군시대 청년영웅들로 훌륭히 키우십시오.》

그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일군들모두가 돌격대원들속에 한결을 더 깊이 들어갔다.

새 착안으로 보내주고 막강일대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오랜 탄광들을 붙여주어 모든 일을 마하는데 없이 해나가도록 도와 주었으며 생활도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그 과정에 돌격대원들이 몰라

보게 성장했다.

이렇듯 어머니탄광의 품속에서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게 된 리수복청년동지대 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양탄광을 비롯한 기업소인의 여러 탄광들에서 청년들이 물려다들 못하고 석탄산으로 당을 밟았다고 결의해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책임비서 리광길동무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상한 종업원들을 위해 함흥영예군인교정기공장에까지 가서 생 의족과 의수를 마련해주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다.

종업원들의 정치적생명의 참다운 보호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 헌신해온 당위원회일군들의 참신한 당사업기공은 단위의 전투력을 비약히 강화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것들이 있는 애국심을 키우며 여기고 꽃피워주어야 하며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위해 더 마음을 써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지켜주어 고집을 잃어내어줄 수 있는것을 우리 당일군들의 사업은 다시금 확충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 단위의 사업성과는 그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의 혁명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1년전까지만 하여도 많은 면에서 뒤떨어졌던 순천시 원수리가 단숨에 일떠선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리당비서 리기복동무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그는 리당비서사업을 시작하면서 농장원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당면한 영농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고 그 기세로 1 000㎡의 남새온실을 건설하였다. 지금 리에서는 농산, 축산, 양어, 버섯재배를 비롯한 모든 사업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력포구역 류현남새전문화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농장의 미래를 위해 자신과 가정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초급당일군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율해되고있다.

이 단위의 사업은 아니다. 황금산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초산군, 사회주의탄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는 성진계관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일이 잘되는 그 어느 단위나 우리의 미더운 책임일군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가 당의 호소에 말이 아니라 불같은 헌신으로, 혁명적인 실천으로 화답한다.

◇ 일군들의 혁명성은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림장으로 부터 비롯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적 지휘성원들이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일군들이 대담하게 작전하고 혁명적으로 일을 제끼지 못하는것은 책임지고 두려워하고 혁명성이 부족해 있다고 하시면서 책임지지는 않는것은 곧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는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책임을 두려워한다는것은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없고 보신할 생각이라는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결국 혁명가의 자세와 림장에 관한 문제로 혁명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자기를 희생할 각오!

혁명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시금석! 그렇다.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책임진다는것은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가진 일군, 혁명성이 강한 지휘성원이 된다것이다.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혁명적전격력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기수, 전위투사이다.

◇ 일군들은 자기의 뼈를 깎고 피를 바치는 희생정신, 필사투쟁정신을 안고 자기 단위 사업을 추진할때 이끌어 나가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이 지냈던 높은 책임성과 혁명성, 전진성과 희생성은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서야 할 위치에는 조건탄약을 하면서 우는소리나 하는 패배주의자, 어떤 문제든지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며 자기 우에다 밀고 아예다 밀며 자러지거나 하는 보신주의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당정책을 환히 꿰고 그 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도를 완강하게 해나가는 실천가,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서서 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최대 로 폭발시키는 항일영웅대나팔수,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철육의 정으로 돌보아주시는 어머니, 이런 일군이 우리 당의 참된 동지이고 전위이다.

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평양화장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일군들은 단위의 행정경제사업에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평양화장품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교훈적이다.

위대한 명동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정책의 운명은 우리 일군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초급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함께 책임지는데는 림장에서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실현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여러 직장의 생산현장바닥에 애국시수직감도장을 하여 무균화를 실현하고 화장품의 위생안전성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식료공업의 무균화, 무진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접한 초급당일군들이 최우선으로 현 대화된 식료공장처럼 공장의 생산현장바닥에 애국시수직감도장 도장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하였다. 지면이 건조, 기사가 잘 건조되도록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공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공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정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던 몇 해전 어느날 지면이, 기사가 잘 마른다는 초급당일군은 박사인 입학문제를 들고나왔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날 우리 일군들부터가 선진기술로 무장하지는 발기에 따라 지면이, 초급당일군, 세수비누직장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공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가능성화장품생산을 위한 가치있는 연구를 한 초급당일군과 지면이, 기사가 잘 마른다는 초급당일군은 박사인 입학문제를 들고나왔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날 우리 일군들부터가 선진기술로 무장하지는 발기에 따라 지면이, 초급당일군, 세수비누직장장을 비롯한 다른 직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공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당책임일군들이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자면 단위의 종업원들의 생활도 책임져야 한다.

정주시 토포협동농장 초급당비서 김영철동무의 사업기공이 좋은 실례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젊고 건강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 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님처럼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당책임일군들은 이러한 초급당비서의 진정은 그 기쁨입니다. 이 어가는 가정방문같은 뜨겁게 비껴갔다.

그가 진행하는 가정방문에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한 가정에 대한 방문을 두번 련이 이 하는것이다.

첫번째 가정방문은 농장원세대 생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때에는 가정 문제를 풀이준 다음에 진행한다.

바로 이 두번째 가정방문을 맺고 진행하기 위하여 그는 많은 공을 들이곤 한다.

첫번째 가정방문을 통해 알게 된 현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고 불가능을 모르는 실력, 실천가가 되는 첫걸음은 배우자살생위인들의 강령적로들과 당정책을 배와 살로 만드는 학습에 있다고 말하곤 한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것은 그가 체험을 통하여 진리로 새겨 짜우명이다.

하기에 그는 당정책을 접수하면 오직 《알았습다.》 라는 대답밖에 모른다.

《알았습다.》

바로 이 다섯글자에 당정책을 환히 꿰고 그 관철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그의 비상한 의지와 불같은 실천력이 담겨있어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채인철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작전도 함께, 실천도 함께

당일군들은 단위의 행정경제사업에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평양화장품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은 교훈적이다.

위대한 명동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당정책의 운명은 우리 일군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초급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함께 책임지는데는 림장에서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실현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여러 직장의 생산현장바닥에 애국시수직감도장을 하여 무균화를 실현하고 화장품의 위생안전성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식료공업의 무균화, 무진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접한 초급당일군들이 최우선으로 현 대화된 식료공장처럼 공장의 생산현장바닥에 애국시수직감도장 도장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하였다. 지면이 건조, 기사가 잘 건조되도록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공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공장에 파견된 일군들이 무균화 처리를 해 주었다.

산림복구는 부강조국건설의 절박한 요구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우리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부강민족을 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 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이었다.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산을 잘 리워 하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셨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문수봉에 오셔서 나무를 심시게도 하시며 전제 인민을 나무심기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 준엄한 전화를 하신데도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이나 산림조성을 정면 생산과 공업생산, 대상건설과 철도운수로 큰 지장을 주셨으며 해마다의 큰물과 사태, 가뭄피해로 농업과 전력공업, 교통수송부분의 정상적발전이 제약을 받고 그것이 편재되어온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셨다.

산림복구는 더이상 물러설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산림회복을 이대로 두고서는 누구도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수 없으며 애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도,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도 황폐화된 산림을 하루빨리 복구해내야 한다.

산림복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한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당일군들이여,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자기 단위사업을 책임진 추진자는 림장에서 뼈를 깎고 피를 바쳐며 높은 사업성적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자.

